

건축과 학생으로의 마지막 여름 방학, 취업이라는 것에 쫓기고 정신 없이 앞만 보고 달리다 보니, 어느새 어디인지 무엇을 위해 또 무엇을 향해 뛰고 있는지 나 자신도 잘 모르는 상태였던 것 같다. 처음 건축과에 들어올 때의 그 열정도 시들해지고, 다른 것은 생각해보지도 않고 ‘설계’라는 목표를 향해 뛰다가 갑자기 다른 것을 생각해 보려니 막막하기도 하고,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무언가를 시작해야 한다는게 막상 아직 어린 나이임에도 불안하고 초조하기만 했다.

모 기업 인턴 사원에 지원했다가 최종면접에서 떨어지고 난 후, 확실한 취업에의 보장이 사라진 나에게 남들 다하는 토익공부나 하며 마지막 방학을 보낸다는 건 무의미한 것처럼 보였다. 그래서 뭔가 다른 것을 배우고, 특별한 경험을 만들어 보자고 선택한 대안이 바로 이 ‘차세대 건설리더 아카데미’였다.

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책상 앞에 앉아 공부하는 것은 고등학교 졸업 이후 처음인 지라 힘이 들기도 했고, 변명이겠지만 첫 주에는 졸업작품 전시회와 겹치며 계속 즐기기도 했다. 프로그램의 내용 역시 나에게서 쉽지는 않았다. CM의 C자도 모르고 시공계획이니, 공정관리니 하는 것들은 건축과는 체력 좋고, 밤 잘 새고, 디자인만 잘하면 된다는 생각 속에서 살아오던 나에게서 제대로 접해보지 못했던 미지의 분야였기 때문이다.

하지만 누구에게나 그렇듯 새롭다는 것은 사람을 들뜨게 만들고, 열정을 되찾게 해 준다.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, 생각들을 공유하며 처음 내가 건축과에 들어올 때 다짐했던 것들이 하나씩 다시 생각나고, OJT를 나가서 보고, 듣고, 느끼고, 배운 것들은 내가 새롭게 도전하게 될 것들에 대한 희망과 기대감을 심어 주었다. 팀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동안에는 정말 우리가 현장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하는게 무엇인가로 뜨거운 토론을 해 보기도 하고, 주제를 정하고 연극을 준비하면서 단합의 시간도 가졌다. 건설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안을 얘기하면서는 ‘학생다운’ 목표로 서로의 편견과 고정 관념을 깨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.

어느새 한달이라는 시간이 훌쩍 다 지나갔고, 잘 못했던 것들에 대한 아쉬움이 남지만, 생각해 보면 꼭 남는 것이 그것만은 아니다. 전국구로 생긴 수많은 인연들이 남았고, 그들과의 좋은 추억이 남았다. 새로 배운 여러가지 지식들과 전에는 해보지 못한 소중한 경험 역시 남았다.

그리고 난 변했다. 다시 한번 해 보려는 의지가 생겼고, 닥친 취업에 대한 불안감보다는 그걸 넘어서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. 그리고 가장 크게 변한 것은 무언가를 바라보는 시야이다. 이것은 내가 이 프로그램에서 얻어가는 가장 큰 것일 꺼다.

한 곳만 바라보는 사람들을 많이 봐왔다. 나 역시도 그런 사람 중의 하나였던 것 같다. 한번 목표한 바를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끈기는 충분히 가치 있는 것이다. 그러나 가끔은 문제가 되기도 한다. 목표가 사라졌을 때의 공허함을 견뎌내기 힘들고, 그 이후 다가오는 상황에 융통성 있게 대응을 하기가 어려운 것이다. 전부라고 생각하고 달려가던 것 저 너머로 더 넓은 뭔가를 보게 된다면, 그 사람은 더 큰 꿈을 가질 수 있다. 그리고, 한 곳을 향해 끊임없이 전진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더 큰 꿈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다.

‘차세대 건설리더 아카데미’라는 프로그램은 이런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한다. 그리고 나는 그 기회를 아주 운 좋게 첫 번째로 잡은 사람들 중에 하나이다. 좀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‘건설’이라는 것을 바라보면 당신이 알고 있는 것보다 더 큰 세상을 볼 수 있을 것이다. 그리고 그 시야는 결국 당신의 미래를 좀 더 멋있게 해 줄 것이다.

처음 건축과에 들어갔을 때도, 지금도 내 좌우명은 항상 같았다. 그러나 그걸 이룰 수 있을 것이라! 스스로 생각했던 가능성의 크기는 달랐던 것 같다. 열정을 가지고 있다면 그 가능성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의 배가 될 수 있다. 그래서 나는 다시 믿는다

먼훗날 언젠가

나는 세상을 바꾼다!